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3일까지 4주 연장

전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5일 종료된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동일하게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적용기간이 종전과 달리 4주로 길게 적용한 것은 잦은 조정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 연휴 이후 환자 발생 양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추석 명절을 2주 앞두고, 전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는 기존에 오후 6시 이전 4인

전북도,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조치도 동일 3단계 이하,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예외 적용 8인까지

까지,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6시 이후 집중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했는데 변경안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에서 집중 완료자 포함 8인까지로 변경된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원 8인까지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로 통일(전북 등 7개 시·도)된다. 다만,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하다.

극적 진단검사 받기를 권고했다. 고향 방문시 가급적 자가용 이용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를 지켜줄 것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고 작년 이어 철도 승차권도 차츰 판매했다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군산·익산과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갈산리)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4주간 연장한다. 환자수 급증으로 4단계로 자체 격상한 전주시와 완주군혁신도시(갈산리)는 유행상황 호전으로 지난 4일 거리두기 3단계로 조정했다. 3단계로 자체 격상한 부안군은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지역 유행상황을

관찰한 후, 자체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수칙 조정 내용은 도내 전 지역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하고, 예방접종완료자는 8인까지(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가정에서만 6명까지 가능) 제한한다. 예를 들어, 전북도는 도내 지역, 단 계구분 없이 사적모임은 4명까지 제한하고 3단계 이하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 없이 만남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9월 6일부터는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로 강화된다. 그 밖에 행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정부의 단계별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른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잦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변경과 방역수칙 조정 등으로 혼란스럽겠지만 그만큼 4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고민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아픔이 심화되는 것이다"며 "계속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희생과 이해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출항 가족들에게 고향방문 자제와 별초대행서비스, 온라인 봉안시설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가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포함된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이번주 중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15억 확보

전주시는 최근 산림청의 '2022년도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5억원 등 총 사업비 115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산림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공모사업 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으며, 전주시는 이에 따라 산림청의 사업방향에 맞는 사업내용을 적절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내년 부터 2025년까지 전주시역 주요 거점 및 대표시설에 실내정원 8개소와 실외 정원 7개소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김윤성 기자



송하진 대한민국의사협회회장이 지난 3일 진행된 '지속 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K방역 2.0으로 전환 필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지속가능 방역 준비 국회 간담회서

디지털 암호화 기술 보완 활용 위드 코로나 준비 차원서 시행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계와 보건·의료계, 중앙 지방정부 등이 모여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민국의사협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회의원),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그리고 코로나 극복 국민 참여방역운동본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공동 주최한 김민석 위원장의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방역 현장조사관, 보건의료인 등 극심한 생계난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의 4차 대확산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추격감사격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방역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거나 충원하고,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 위한 준비 차원에서 꼭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계, 시민사회, 정부 등 각 분야의 패널리스트가 참석했다. 학계 패널로 김동현 교수, 김윤 교수가 참석했으며, 국민 패널로 이성원 사무총장, 주지수 주무관, 위미영 팀장, 강정화 준비위원장, 천정희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 국민 패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보건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정책 건의를 했다.

정부 패널로는 이한경 실장, 박항국장, 배경택 국장, 강영석 국장이 참석했다. 정부 패널로 참석한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최일선 방역에 필요한 인력 충원과 자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 위해 국민참여 방역으로의 전환은 선제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국회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영되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송 회장은 "이제 코로나19의 방역은 지속 가능한 K-방역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추적·검사·역학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K-방역 시스템의 전환에 공감하며,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준비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본사 인사

▲이 영태
임 : 기자
명 : 편집국 경제부

(9월 2일자)